

단순하고 통쾌한 웃음 주는 개그맨 정종철

글 박연숙(본지기자), 사진 김갈갈이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억지웃음도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웃음학교가 문을 여는가 하면 웃음치료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반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그맨들은 또 다른 분야의 정신과 의사다.

최근 마백이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개그맨 정종철, 그에게 웃음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단순한 웃음이 좋다

아침에 출근해서 한 사람이 하는 일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보면 몇 가지나 될까? 해야 할 일도, 알아야 할 것도 많은 현대인은 정말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일까, 아무 생각없이 머릿속을 비우고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코미디가 시선을 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골목대장 마빡이’다.

‘골목대장 마빡이’는 소위 슬랩스틱 코미디이다. 슬랩스틱을 이끄는 핵심은 난폭한 행동이나 과장된 행동을 통해 웃음을 주는 것으로 마빡이가 계속 머리를 치는 행동이 그것이다.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반복해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기다고들 하세요. 사실 제가 봐도 웃기거든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단순하게 웃음을 주는 것, 어쩌면 시청자들이 원하는 웃음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마빡이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개그콘서트를 통해서지만, 사실 마빡이는 7년 전부터 대학로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캐릭터였다. 대학로에선 꽤 인기를 끌었지만, 이걸 방송에서 하게 되리라고는 그도 예상치 못했다. 방송에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것이 다소 실험적이었는데 결과를 두고 볼 때 그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빡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기 매우 어려운 코너이기도 해요. 매주 인터넷 게시판 등의 의견을 참고하며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데요, 쉽지만은 않네요.”

남철, 남성남 시절의 빛바랜 코미디 같은 이런 개그가 대중에게 먹힐까 우려했지만, 즉흥적인 애드리브가 횡행하는 개그계에서 골목대장 마빡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심지어는 주제곡인 나무자전거의 ‘보물’까지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는 걸 보면 마빡이는 단순히 개그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출구인지도 모른다. 한껏 고무된 인기에 들뜬 법도 한데, 정작 주인공은 덤덤하기만 하다.

개그 하며 살게 해준 옥동자에 애착 커

개그맨들은 코너에 따라 변신을 한다. 야심차게 기획한 캐릭터가 시청자의 외면으로 한두 달 만에 막을 내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성공을 거둔 캐릭터로 일이 년을 끌고 갈 수도 있다. 그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시청자의 몫. 그러다 보니 연예계에서도 부침이 심한 곳이 바로 개그계인데, 옥동자 이후 마빡이로 거듭 성공을 거둔 정종철의 심경이 궁금하다.

“기분이 좋죠. 정말 단순한 캐릭터인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해주시니까 더 신나게 일합

니다. 제가 개그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누가 뭐래도 옥동자죠. 옥동자와 저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침이 심한 개그계에서 인기를 얻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이끌어 준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냉면집에서 일한 적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신앙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핵 홍보대사로서 결핵 예방 돕고파

많은 시청자들이 개그맨들은 현실에서도 웃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요리사가 집에서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않듯, 실생활에선 과묵한 개그맨들도 많다. 옥동자, 마빡이 등 희극 캐릭터가 강한 정종철의 경우엔 어떨까? 실제 성격이 궁금해졌다.

“사실 개그 할 때보다 평소 때가 더 재밌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예전에 길에서 어떤 분들이 ‘옥동자’ 해봐라, ‘마빡이’ 해봐라 하고 주문하시더군요. 그럴 때 좀 난감하긴 합니다. 가수에 게 노래하라고 시키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던데, 에이, 아무리 개그맨이지만 제 나이 서른에 길에서 그런 것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하하~”

그런 그가 개그맨으로서 그리는 미래는 그의 개그처럼 소박하고 단순하다. 5년 후엔 어떻게 되고, 10년 후엔 어떻게 되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그저 시청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개그맨이 되고 싶단다. 단순하지만 그 속엔 아주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한결핵협회의 홍보대사 3인방 중 한 명으로 활발한 활동은 펼치고 있는 만큼 크리스마스 썰에 대한 그의 생각도 남다르다. “어릴 때 우표 대신 크리스마스 썰을 붙여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물론 반송되어 돌아왔지요. 그땐 정말 우표처럼 쓸 수 있는 줄 알았다니깐요.”

대한결핵협회의 홍보대사가 되면서 결핵이나 크리스마스 썰 등 그동안 잊고 있던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겨울 썰 한 장 구입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의사가 아니라서 결핵을 치료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방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요.”

기자 역시 그가 바라는 대로 ‘오래가는’, ‘생명력이 긴’ 개그맨으로 남길 바라며, 또 그러리라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든다. †



2006 크리스마스 스티 I ♥ Dokdo